

PC6) 여성용 5종 향수에 대한 감성구조 분석

김현정·유미선¹⁾·양성봉¹⁾

경북과학대학교 화장품뷰티계열, ¹⁾울산대학교 화학과

1. 서 론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감성적 가치가 중요시 되면서 향수의 사용으로 인한 수입량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4년 현재 세계 시장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향수는 약 3만 종에 달하며 국내에서도 약 100여 종 이상의 향수가 유통·판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입되는 향수 중 수입량과 유통량이 많은 5종(Omnia Amethyste, Eclatd'Arpege, Zeal, Light Blue, Flight of Fancy)을 선정하여 시향을 통한 선호도 조사와 더불어 감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2. 5종 향수의 관능평가

2015년 울산대학교와 경북과학대학교의 남학생 53명, 여학생 64명을 대상으로 5종 향수(Omnia Amethyste, Eclatd'Arpege, Zeal, Light Blue, Flight of Fancy)에 대해 시향 후 좋아하는 향수와 싫어하는 향수에 대한 응답과 손진훈 등(2002)이 제시한 향 감성평가 척도를 이용하여 향수에 대한 감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Varimax 회전)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관능평가에 따른 통계처리결과 좋아하는 향수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 없었지만, 싫어하는 향에 대한 응답에 남성은 Eclat D'Arpege, Zeal, Flight of fancy를, 여성은 남성에 비해 Omnia Amethyste, Light blue 향수를 싫어하지만, 5가지 향수 중 싫어하는 향수를 찾을 수 없다는 답변도 31.3%에 달하였다.

향수에 대한 감성평가 결과 Omnia Amethyste의 감성구조는 7가지 요인이었으며, 전체 변량의 69.22%를, Eclatd'Arpege의 감성구조는 7요인으로 전체 설명변량의 72.72%를 나타내었다. Zeal은 7요인으로 분석되며 전체 변량의 71.27%, Light Blue의 감성요인은 6요인으로 나타나며 전체 설명변량의 68.48%를 설명하였다. Flight of Fancy의 경우 감성요인은 8요인으로 보여지며 전체설명 변량은 72.19%를 나타내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여성향수 5가지에 대한 감성평가 결과 공통적인 요인들로 인해 상호 연관성이 높은 잠재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일부 감성요인은 각 향수의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참고문헌

손진훈, 박미경, 이배한, 민병찬, 2002, 향 감성평가 척도개발 및 향 감성구조 분석, 한국감성과학회지, 5(1), 61-70.

김현정, 2015, 한국인이 선호하는 향의 향질과 고등어와 삼겹살 구이에서 발생하는 냄새의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